

# 광주FC, 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잇는다



지난달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외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3라운드 홈 경기에서 광주FC 유제호가 드리블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FC



### 내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부천전 상대전적 11승 5무 5패 우위...팬 참여 이벤트 다채

프로축구 광주FC가 안방에서 순위 반등을 노린다. 광주FC는 11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천FC1995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지난 4일 강원전에서 0-3으로 패배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 결과 1승 3무 2패 승점 6으로 순위 역시 리그 10위(4득점)로 하락했다.

이번 부천전은 광주의 향후 순위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경기라 전망된다. 현재 K리그1은 6위 대전하나시티즌부터 광주까지 모두 승점차 없이 득실차로 순위가 갈려있다. 또 위로는 5위 인천유나이티드(승점 7점)가, 아래로는 11위 김천상무와 12위 제주SKFC가 각각 승점 5점으로 추종하게 몰려있다.

이번 7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판도가 뒤 흔들릴 전망이다.

최근 광주는 원정 3연전에서 1무 2패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2경기에서 8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던 만큼, 이번 홈경기에서는 반드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광주는 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25시즌을 포함해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전 이후 약 한 달 만에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안방 이점을 살려 6경기 연속 무패 기록에 도전한다.

광주는 부천을 상대로 연패 탈출과 홈 무패 행진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이정규 감독이 경교 누적으로 벤치를 지키지 못하는 변수 속에서도 선수단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광주는 부천과의 역대 리그 전적에서 11승 5무 5패, 홈에서는 6승 3무 2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코리아컵 4강 맞대결에서도 1·2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구단 최초 결승 진출을 이뤄낸 경험도 있다.

이번 경기 상대인 부천은 올 시즌 전북, 대전 등 우승 후보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문태노, 갈레고, 바사니 등 외국인 선수들의 공격력이 위협적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올 시즌 상반기 '약진고투'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가 부천을 꺾고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 광주는 이번 부천전에서 봄을 맞아 다양한 팬 참여 이벤트를 운영한다. 하프타임에는 대학생 소개팅 이벤트 'LOVE KICK-OFF'를 진행해 젊은 관람층 유입과 현장 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당 좌석을 예매한 팬들을 대상으로 밸런스 게임과 O/X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참여자에게는 후라이드참살하는집치킨, 경기 관람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으로 현장 참여도



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기 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신홍수씨 등 3인이 시축자로 나서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의미를 더한다. 이어 지난 전북전 하프타임 이벤트 '주라기 월드컵' 우승자인 박세형 씨가 매지볼 달리 바리(OMBC)에 참여해 팬 참여형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이어간다.

경기장 동측 광장에서는 다양한 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AR 사격 체험을 비롯해 테이볼 사격, 1대1 축구 매치업 등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된다. 푸드부스 역시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운영돼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

장의 행사로는 식목일과 지구의 날을 맞아 폐추구공을 화분으로 재활용하는 환경 정화 프로그램 'Re-Born Ball'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전시 부스도 함께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선사할 계획이다.

구단 관계자는 "대학생 소개팅 이벤트를 비롯해 경기장에서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남 스포츠 대축제, 구례서 오늘 팡파르

13일까지 22개 시·군 열전...7137명 23개 종목서 경쟁



전남도민의 최대 스포츠 축제의인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가 10일 구례군에서 막을 올리고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오는 13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꿈을 모아 구례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 화합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선수 4581명과 임원 2556명 등 총 7137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육상과 축구 등 23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경기는 26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정식 종목은 검도,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배드민턴, 배구, 배드민턴,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스포츠테니스, 수영, 씨름, 역도, 유도, 육상,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등이다.

대회 기간 선수단과 임원 7137명을 비롯해 관람객 약 1만5000명 등 모두 2만여명이 구례를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례군 일원은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로 물들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2년 제51회 대회 이후 14년 만에 구례군에서 다시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남 체육의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회식은 10일 오후 4시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식전행사와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



13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련돼 도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대회 기간에는 각종 홍보부스와 푸드트럭,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개막에 앞서 진행된 일부 사전경기에서는 벌써부터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다. 농구에서는 신안군이 1위를 차지했고, 여수시가 2위, 순천시와 완도군이 공동 3위에 올랐다. 태권도에서는 여수시가 1위, 고흥군이 2위, 목포시가 3위를 기록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14년 만에 구례군에서 다시 열리는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전남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광주일고 야구부가 지난 8일 선산인 밀양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물포고와의 대회 8강전에서 8-1로 8회 콜드승을 따냈다. 사진제공=광주일고 야구부

## 광주일고,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4강행

광주일고 야구부가 '2026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운재 감독이 지휘하는 광주일고는 지난 8일 선산인 밀양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물포고와의 대회 8강전에서 8-1로 8회 콜드승을 따냈다.

광주일고는 이번 대회 예선부터 전승을 달리는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동산고에 2-0, 한국마사고BC에 11-0, 김해고에 9-7 승을 거둔 뒤 16강에서 대구상원고를 7-5로 제압했다. 이어 8강에서는 제물포고마저 완파하면서 준결승행에 올랐다.

지난 2021년 지휘봉을 잡은 조운재 감독은 지난해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7년 만에 우승을 이끌어내며 광주일고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특히 광주일고는 전국체전을 포함해 전반기 광주·전남권 주말리그 4연승, 이번 대회 5연승을 더해 최근 13전 전승 행진을 펼치고 있다.

광주일고는 10일 같은 장소인 밀양스포츠파크에서 덕수고와 결승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이날 경기에서는 광주일고 1회말부터 선취점을 뽑아냈다.

선투타자 김민혁이 우측에 떨어지는 안타를

8강서 제물포고 상대 8-1 콜드승 오늘 덕수고와 결승행 티켓 경쟁 "공수 모두 안정적인 모습 보여줘"

경기는 6회까지 서로 득점 없이 이어졌고, 광주일고가 7회말부터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다. 선투타자 배중윤이 유격수 직선타로 물러난 뒤 타석을 이어받은 김선빈이 중전 안타를 기록했다.

조휘원은 2루타를 쏘아 올리면서 찬스를 만들었다. 이어 정도건 타석에서 상대 포수 김선빈이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광주일고는 8회 3루타를 만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1사에서 김시우가 우측권을 완전히 가르는 3루타를 폭발시켰다. 이어 김민혁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김문경의 볼넷 이후에는 도루와 땅볼로 다시 득점 기회를 잡았다. 이어 상대 포수가 또다시 나오면서 득점에 성공. 경기는 8-1 광주일고의 콜드승으로 끝이 났다.

조운재 감독은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잃지 않고 준비한 플레이를 잘 수행해 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며 "공수 모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덕수고와의 준결승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결승 진출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이강인 교체 출전' PSG, UCL 8강 경기서 리버풀에 완승

이강인을 후반 교체로 투입한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첫 경기에서 리버풀(잉글랜드)에 완승했다.

PSG는 9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 UCL 8강 1차전 홈 경기에서 데지레 두에의 선제 골과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추가 골을 엮어 리버풀에 2-0으로 이겼다.

이강인은 벤처에서 시작해 팀이 2-0으로 앞선 후반 33분 두에가 빠지면서 그라운드를 밟아 경기



장면이 아쉬웠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는 교체로만 10경기에 출전해 1도움을 기록 중이다.

가 끝날 때까지 뛰었으나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우스만 벨렐레가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슈팅한 공이 골대를 맞고 나온

연합뉴스